

# 中學生이 되는 ESCO

1992년도에 ESCO제도가 수립되었으니 ESCO를 사람으로 보면 올해는 중학생이 되는 해다. 국가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만든 제도가 발전하여 청소년으로 성장하였다. 이제는 대내외적으로도 ESCO위상이 높아지고 업계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몸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감회가 깊고 매우 기쁘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1999년도에 ESCO협회가 설립되었고 본 글이 게재되는 ESCO잡지도 이어서 발간이 되었다. ESCO가 부쩍 성장한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겪었던 IMF 시기였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상황이라 에너지절약은 필수였고, 이 과정에서 ESCO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며칠후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가 발효 되는바, ESC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해이다. 따라서 ESCO가 완전한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ESCO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정리하여 보았다.

인터넷에서 중학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찾아보고, 사춘기의 갈등과 고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사귀면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시기 등이 특징이었다. 곰곰이 생각하니 ESCO중학생에게도 적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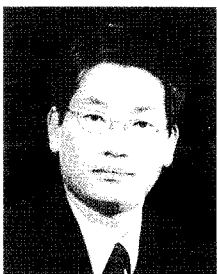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중학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더니, 많은 내용이 학습과 관련된 것이었고, 사춘기의 갈등과 고민

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친구와 많이 사귀면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시기 등이 특징이었다. 곰곰이 생각하니 ESCO중학생에게도 적용이 된다.

에너지절약이 새삼 어제오늘의 주제는 아니다. 73년도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이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하여 왔으나, 오히려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어 왔기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도 든다. 다만, 가끔 충격요법(?)인 오일쇼크, 고유가 등이 있을 때마다 에너지절약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ESCO는 에너지절감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에너지절약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ESCO의 가치가 대중적인 홍보와 정부의 제도보다도 더욱 높은 것이 아닐까 한다.

일반적으로 ESCO의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절약기술력, 둘째는 투자자금력이다. 이 중에서도 절약기술력은



■ 삼성에버랜드 황건희팀장  
gh.hwang@samsung.com

# 一言一社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아픈 곳을 느껴서 찾아가지만 ESCO역할은 아픈 곳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기 교체 수준의 어설픈 진단력과 수술능력으로는 치유에 한계를 갖게 된다. 중학생의 능력은 초등학교와는 달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진단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의 능력을 갖추는 데서 발휘된다.

지금부터는 앞서 병원과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은 공익적인 것으로서, 의료보험제도가 병원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처럼, **에너지절약자금지원 제도는 ESCO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ESCO가 어려움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에너지소비자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를 위한 풍부하고 저렴한 자금의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정부의 고민을 기대한다.

더욱이 앞으로 ESCO의 역할은 에너지효율개선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중학생의 학습 과목에 기후변화협약대응이라는 과목이 추가된 것이다.

**아직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학습서도 없고, 선생님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나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약 교재로는, “우리나라는 2차 의무감축대상국으로 포함되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야 하나,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축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에너지효율이 낮고 에너지 다소비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열심히, 정교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이다. 몇 명의 선생님들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을 공부할 것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대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목인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춘기 과정 극복과 친구 사귀기에 대하여 보면, 최근 몇 업체에서 ESCO사업을 수행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는데 아무래도 사춘기적인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친구가 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1992년도에는 ESCO가 3개사 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159여 개로 증가했고 ESCO자금규모도 연간 1천억원으로 증대되었으며, 전년 말까지 누계로 2,327건 5,138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통해 70만 TOE에 달하는 에너지절감을 이루었다.

좀 더 많은 ESCO와 전문화된 ESCO 확대를 통해서 ESCO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에너지절감을 주도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는 약 25개사가 주축인 ESCO동아리인 ESCO협회를 통해서 다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도, 가입하지 못한 ESCO는 올해에 모두 가입하여 제도개선과 사업확대를 추진하는데 서로가 힘을 합치고, ESCO사업을 성장시켰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속한 삼성에버랜드의 에너지사업은 종합적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부문의 효율개선과 함께 에너지 공급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개선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기업으로의 성장이다.

즉, 건물부문에서는 다양한 절약기기의 적용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산업부문에서는 기기보다는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을 시행하여 왔다. 건물부문은 앞으로 리노베이션 단계에서의 에너지계통의 효율적인 구성을 추가할 것이며 산업부문은 적용 분야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건물과 산업부문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너지소비부문이 아닌 에너지공급부문에서의 에너지이용효율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열병합설비를 통한 자체적인 에너지생산과 소비효율의 개선이 있으며, 잉여에너지 활용계통 구축을 통한 기업 간의 에너지원의 효율개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ESCO시장을 다양하게 개척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ESCO들의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가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ESCO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ESCO 중학생 화이팅!